

대한치주과학회지의 현황과 미래

김태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주과학교실

The present state and future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eriodontology

Tae-Il Kim

Department of periodontolog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0,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eriodontology will be renamed to the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cademy of Periodontology.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is English to encourage submissions from international authors and to provide adequate distribution of the articles. The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is a peer-reviewed journal providing current information relevant to professionalism of periodontology & periimplantology and welcomes practical clinical reports, sophisticated original articles and fundamental reviews covering broad range of interests within the scope from anyone around the world.

2009년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급성 기관지염과 급성 편도염에 이어 외래 질병 분류별 다빈도 상병순위 3위에 위치하여 치주조직의 건강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강보건의 영역을 넘어서 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 치주과학적인 지식의 능동적인 활용과 배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960년에 창립된 대한치주과학회가 내년이면 어느덧 반세기를 맞게 되며, 우리 학회의 공식학술지인 대한치주과학회지도 통권 40권을 바라보게 됩니다. 초창기에 연간 1호씩 발행하던 상황과 현재 연간 정기호 4호 및 특별호 1호의 발간정책을 유지하는 현실을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대한치주과학회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학술지 중, 치주과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일무이한 정기간행물로서 국내 학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80여 편에 달하는 논문들이 수록된 우리 학술지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결과, 2005년도에는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에 선정되었으며 올해에는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국내 의학학술지 평가사업 심사에서 KoreaMed 등재학술지로 결정되어 우리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영문서지정보와 초록정보를 공신력 있는 경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원문 정보 및 참고문헌에 대한 대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출판 및 참고문헌 연결 시스템인 Synapse에도 참여하여

학술지의 국제적 배포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래 들어, 국내 연구자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 국제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는 일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색인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 학술지는 점차적으로 투고원고가 감소하고 있으며, 원고의 수준도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하여 점점 편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자들의 게재논문증가율을 분석한 2007년도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학술지 발행논문에 비해 국제 학술지 게재 논문 증가율이 10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 많은 국내 학술지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론이 얻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자극받은 국내 학술지들이 국제화를 목표로 노력을 경주한 결과, 국내 의학 학술지 가운데 20여 종이 국제색인에 등재되어 전세계로부터 논문을 투고받아 국제 학술지로서 면모를 일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치주과학회지는 국내 치의학 분야의 주요 학술지로서, 국제 학술지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성이 충분하다고 대외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국내 치주과학 연구진들의 국제학술지 게재논문수가 연간 50여 편 이상에 달하며, 기초학문과 임상학문이 결합된 치주과학의 특성상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대한치주과학회 편집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우리 학술지를 전문 영어로 발행하는 것을 결

의하였으며, 학술지 명칭도 국제적인 원고투고 및 배포의 편의성을 위하여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로 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발행되는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는 격월간으로 연간 6호를 발행할 예정이며, open access journal 정책을 채택하여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국제적으로 발송배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국제학술지로서의 최소한의 조건은 마련되었으나, 성공적인 국제학술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논문 형식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의학학술지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형식이 존재하는 데, 우리 학회지의 투고규정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국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의 생의학학술지 투고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근간으로 하여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논문의 독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외국에서도 본 학회지가 자유로이 검색되고 배포되기 때문에 중복게재 및 표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구자의 명성

뿐 아니라 학회지의 위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따라서, 출판윤리에 대한 연구자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작권을 명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다른 저작물의 정보를 가져온 경우, 사전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후 원고 내에 그 사실을 기술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해갈등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연구와 관련된 재정적, 사적인 관계에 대한 고지를 통해 논문의 과학적인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학회와 회원 및 연구자들이 학술지 국제화 작업에 혼연 일체가 되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국제 학술지로서의 위상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듯이 일회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색인에 등재되었다고 해도 해마다 시행되는 해외전문기관의 평가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언제든지 등재가 취소되는 것이 국제 학술지 세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 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국내 학계에 많은 기여를 해온 대한치주과학회지의 명맥을 이어 발행되는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가 국제적인 학술지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